

“서민 술 6000원 안돼”… 식당도 ‘눈치보기’

주류값 인상 조짐에 소비자 우려 지역식당가 “먼저 올린 부담 커” 소주업계 “물가 민감품목… 고심” 정부, 실태조사 등 가격개입 나서

최근 주류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면서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에 이어 ‘서민 술’인 소주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당들도 이미 주류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큰데다 손님도 줄어들지 않을까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가격인상을 자체 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째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문하는 손님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각각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올해는 아직 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르는지는 않았지만, 만약 음식점에 판매되는 출고가 오르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도 “출고가 올라도 단골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순식간에 1000원씩 술값을 인상하기는 큰 부담이라서 추이를 잘 살펴본 뒤 분위기에 따라 인상 금액이나 시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야말로 눈

치게임이다”고 말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줄줄이 오른 소주와 맥주 가격에 평균 4000원선에서 4500원, 5000원으로 인상한 주류 가격을 1년만에 다시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동구 충장로2가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는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은 정말 퇴근길 서민들의 피로를 씻어 주는 상징과도 같았는데 이제는 맥도 없는 소리 같다”며 “작년에도 5000원으로 소주 가격을 인상하기까지 수개월 손해를 보고서야 겨우 올렸는데 올해 또 오르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 역시 주류 가격 인상 분위기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홈술’ 문화가 비대면 때문이

아닌 ‘비싼 술값’ 때문에 되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다.

직장인 윤모씨는 “대학생때 3000원이던 소주 한 병 가격이 어느새 4000원이 되더니 이제는 6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체감된다”며 “그렇게 않아도 외식 지출을 줄여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값까지 또 오르면 이제는 모임도 집에서 하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주류 가격 인상 전망은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l 당 30.5원 올라 885.7원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소주의 경우 주세 인상 품목은 아니지만, 최근 주재료인 주정(에탄올)과 소주병 공급 가격 등이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앞새주와 매쉬순, 보해복분자 등을 판매하는 보해양조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주정 가격이 8%가량 상승하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고 지난해에도 출고 가격을 올린 바 있어서 당장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주류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필요하다면 이익 규모 및 경쟁 수준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첨단산업경영자협회장에 박인철씨

박인철(사진) 무송지오씨(주)대표가 27일 제11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첨단산업경영자협의회는 지난 2003년도 창립 이후 20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교류 활동을 비롯해 노사화합과 경영혁신 아카데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동 및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등 복지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를 시행했다.

첨단산업경영자협의회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총회 및 회장 아·취임식을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대외적으로 광주지역과 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입주기업과 지자체·유관기관 간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곽지혜 기자

금호타이어 ‘TCR World Tour’ 스폰서 체결

‘금호 TCR 월드 투어’로 레이싱 대회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금호타이어는 최근 WSC그룹과 세계 최정상급의 투어링 대회인 ‘금호 TCR 월드 투어(KTWT, KUMHO TCR World Tour)’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이틀 스폰서 체결식에는 금호타이어 이강승 유럽본부장 전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WSC그룹 마르첼로 로티 회장, 눈지아 코르비노 등 최고 운영 책임자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 TCR 월드 투어는 유럽 포르투갈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호주, 마카오까지 4개 대륙, 총 7개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벨기에 스파 서킷은 F1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가운데 가장 긴 서킷으로 초고속 서킷임에도 적절한 코너들이 잘 조합돼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레이스 경쟁이 예상되는 서킷이다.

또 호주를 대표하는 배서스트 서킷은 산악 지형 위에 만들어진 코스로, 경기 중반부터는 호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레이스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첼로 로티(왼쪽부터) WSC그룹 회장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가 스위스 루가노에서 TCR World Tour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다.

이를 위해 이번 금호 TCR 월드 투어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 S700’과 빗길에서도 높은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엑스타 W701’을 장착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TCR 유럽 주요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TCR 남미, TCR 중동 2개 지역 대회와 TCR 호주, TCR 브라질, TCR 핀란드 3개 국가 대회를 추가해 타이어를 독점 공급, 최상

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수년간 축적해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TCR 월드 투어의 파트너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고성능 브랜드로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호 TCR 월드 투어는 유로스포르츠, 폭스스포츠, 빌리빌리 등 총 53개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현대차 ‘더 뉴 아반떼’ 부분변경 모델 공개

디자인 완성도 끌어올려 동급 최고 상품성도 기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아반떼가 한층 역동적으로 진화한 인상과 함께 돌아온다.

현대차는 27일 ‘더 뉴 아반떼’ (사진)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의 강렬한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 모델에 녹아 있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테마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그래픽 요소를 확장해 보다 낮고 와이드한 비례감을 완성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더 예리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디자인돼 전체적인 인상을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라디에이터 그릴은 센터 크롬가니시를 기준으로 상하가 깔끔하게 정돈돼 차량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한다.

측면부는 삼각형 문양의 패턴이 강조된



델타커버와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워진 자태를 갖췄으며 후면부 리어 범퍼는 투톤 그래픽과 함께 견고하고 날렵한 디자인이 적용돼 한껏 또렷해진 인상을 구축, 윙타입의 실버가니시를 적용해 스포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스탠스를 완성했다.

또 신규 바이오 친환경 소재의 세이지 그린 컬러가 새롭게 적용된 인테리어는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하면서도 친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한층 강인한 인상으로 거듭난 아반떼의 디자인에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혀 대표 준중형 세단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내달 중소기업 경기전망 대부분 업종 ‘반등’

업황전망 83.1 전월비 5.5p ↑ 내수·수출 ‘상승’ 고용 ‘하락’

내달 중소기업 전망지수가 대부분의 업종에서 반등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 전망지수(SBHI)는 83.1로, 전월 대비 5.5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86.5로 전월 대비 5.4p, 비제조업은 81.5로 5.4p 각각 올랐다. 건설업(82.8)은 전월 대비 8.5p, 서비스업(81.3)은 전월 대비 4.8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8p) △비금속광물제품(14.6p) △음료(13.7p)를 중심으로 19

개 업종에서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8.3p)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5.6p) △가구(2.9p) 등 4개 업종에서는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4.3→82.8)이 겨울철 비수기 종료에 따라 전월 대비 8.5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6.5→81.3)은 전월 대비 4.8p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1p)만 하락했으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7p) △운수업(5.8p) △도매 및 소매업(5.4p) 등 9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7.2→81.3) △수출(85.6→86.3) △영업이익(75.7→77.1) △자금사정(77.2→77.3) 전망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

용(94.5→94.2) 전망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수출·자금사정 전망은 악화된 반면, 경기전반·생산·내수·영업이익·원자재 전망과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 전망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수출 전망은 악화된 반면, 다른 항목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0.5%)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55.2%), 원자재 가격 상승(41.4%), 업체 간 과당경쟁(34.3%), 고금리(2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곽지혜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